

현대인에게 자연과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든 진리의 모형, 모든 발전의 모태, 모든 문제의 해결사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이런 현대과학에 대해서 기독교도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과학에 대해서 오늘의 기독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 과학적 지식을 모든 객관적 지식의 표준으로 인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1-1)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거나 (1-2) 증명하려는 시도와 (2) 과학적 지식과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상호불간섭,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1)의 입장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무지의 소치나 신화로 간주하게 되고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1-2)의 입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적 지식은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음을 전제하되, 양자 간에 나타나는 차이와 갈등은 성경이나 과학 지식 그 자체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성경해석이나 과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취급한다. (2)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과학자인 사람들 대부분이 취하는 것으로 학문 활동과 신앙생활을 큰 갈등을 느끼지 않고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입장도 과학적 지식 그 자체의 권위는 부정하지 않는다.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

그런데 현대 과학이 과연 그렇게 절대적인가?

우선 용어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곧 자연과학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란 것도 있고 후설(Edmund Husserl) 같은 철학자는 심지어 ‘엄밀한 과학으로서의 철학’이란 표현도 사용하였다. ‘과학’은 그저 ‘이론적 지식’이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성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episteme)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반면에 주로 경험에 근거한 상식(doxa)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주후 1세기에 전파된 ‘십자가의 도’가 그런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가 불안한 관심을 갖는 것은 과학 일반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다. 물론 자연과학이 곧 과학이고, 모든 확실한 지식은 자연과학처럼 엄밀하거나 자연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관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유물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혹은 철학적 주장일 뿐이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동일성' (uniformity of nature) 을 전제한다. 모든 자연현상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초로부터, 어디서든지 물은 0도에 얼고 100도에 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반증되지 않았으므로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반드시 타당하다는 보장은 없고, 그런 전제로는 정신현상과 사회현상은 설명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 이 주장한 것처럼 사랑, 고통, 죽음, 윤리, 의미 등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성질이 동일성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자연과학의 범주 바깥에 있다.

전통적으로 '과학'이란 이름을 가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논리적이라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실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은 0도에서 언다. 그러므로 0도에서 어는 것은 다 물이다"는 발언은 비록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더라도 과학적 발언은 아니다. 논리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모든 귀신은 뿔을 가지고 있다. 산신령도 귀신이다. 그러므로 산신령도 뿔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적으로 옳지만 실증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발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두 조건도 지금은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해 놓은 학문 공동체의 약속일 뿐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경험을 무시하고 논리적인 타당성에 큰 무게를 두었으나 종교개혁 이후로 실험이 과학적 지식에 필수적이 되었다. 앞으로 그 조건들은 얼마든지 바뀌질 수 있다.

물리학자요 철학자였던 포퍼(Karl Popper)는 모든 자

연과학적 설명은 '가설연역적 방법' (hypthetico-deductive method)에 따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에 온도가 0도일 때 물이 어는 현상을 보고 "모든 물은 0도에서 언다"는 결론을 내리는 귀납적 방법(inductive method)이 아니라, 과학자는 우연의 경험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통하여 먼저 "물은 0도에서 언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반증(falsify)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가설이 실험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반증되면, 즉 0도에서 물이 얼지 않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가설은 폐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정은 폐기될 때까지만 타당한 (valid) 이론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이론도 영원히 폐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모든 과학적 진리는 잠정적으로만 타당하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



물론 자연과학은 전혀 믿을 수 없고 헛된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야 어떻게 발견하고 누가 주장했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며 (Holmes), 진리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Calvin). 과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과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도 독단적이 될 이유가 없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